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만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먼저 구할 하나님 나라    성경: 마태복음 6장 30-34절

Tag: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6:30-34)

오늘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주제는 아니다. 연관부제 정도 된다. 그런데 부제를 먼저 다룰까 한다.

맨 마지막 34절에 보면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즉, 염려의 효력은 길어야 12시간 이라는 뜻이다.(밤에는 자야 함;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 30:5) 오늘 내가 염려해야 할 것조차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너무 안일한 삶을 사는 셈이다. 실패할 것이 뻔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무사안일주의가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삶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34절 말씀은 그러므로 염려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윤리적인 금기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날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마치 숙제를 하듯이 지혜를 짜내고 대처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 날마다 숙제를

하듯이 그날의 과제를 위해서 뛰고, 내일의 고민은 또 내일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면 된다. 어차피, 어제의 지혜로 어제 도전을 해 보았고, 그래서 얻은 결과물로 오늘이 있는 것이니, 오늘에는 내일을 예측하기 힘들고, 예측하더라도 오늘 숙제도 있는데 내일 숙제까지 하려면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오늘 해야 할 숙제까지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오늘의 과제는 더 어려워질 뿐이다.(인생이란 바둑 놓듯이 몇 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말은 내일이라는 상황이 닥쳐봐야 비로소 정확한 과제가 나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past is past, 내일은 내일이다.) 내일의 염려를 줄여가는 길은 오늘의 염려에 최선을 다하는 것.

\* 염려와 오늘과 내일의 함수관계 ( $t_1$ =오늘,  $t_2$ =내일, 염려= $x$ , 내일의 염려는 위험도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위험도는 오늘의 염려에 집중할수록 더 작아진다. 내 발등의 불)

1. 내일이라는 상황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문제는 사회적 이슈와 관계가 깊고, 내일이라는 상황을 연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따라서 내일이 다가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누가 마음이 변해서 계획이 틀어질지도 아무도 모른다.

2. 오늘의 상황과 문제가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오늘의 목표를 내가 완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하나님은 항상 오늘만 도우신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3. 사회적 문제는 대부분 오랜 세월을 통해서 변한다. 당장은 내게 좋을지라도 10년 후에도 동일할지 아무도 모르고, 당장은 내게 불리할지라도 10년 후에는 나에게 유리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4. 마귀는 염려라는 독방안에 개인을 감금하기를 좋아한다. 염려는

개인주의화 시키면 안된다. 그 감옥에서 나오는 열쇠는 의외로 쉽다.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라. 사람들에게 자신 의 염려를 말하고 지혜를 구하라. 쓸데없는 참견러들도 있겠지만, 진실한 경험자들도 있다. 누구의 말이 나를 감옥에서 꺼내줄지 아무도 모른다. 염려되면 대화를 하고, 지혜와 비전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

이 말씀은 짧은 한 때를 살게되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 셴다는 뜻이다. 우리 생각에 보잘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풀을 위해서 가장 좋은 DNA와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씀의 숨은 뜻은 들풀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 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값지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DNA를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환경을 만 들어 주셨다.

지구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딱 좋다. 지구는 오직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 되었고, 디자인 되었고,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 리고 지구는 심지어 유기체이다.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철저한 법칙이 있으며,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잘 살기 위해서는 지구에 잘 적응해서 살아야 할까, 지구를 정복하 고 개발하고 탐구하고 재창조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한데, 후자가 더 행복하다. 나는 후자를 선택한다. 왜냐면 33절 말씀 때문이다.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 말씀은 인생의 목적의식에 관한 말씀이다.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모든 인생의 윤리는 하나님의 의이다. 먼저 이것 을 이루려고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사

명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 이때부터 그 사람은 무명의 들몰과 다름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거듭나면서 차츰 차츰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 등등이 발생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약속이 뒤에 있다.

이 모든 것?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을 먼저 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두 번째 발생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먼저는 성취감과 만족감이다. 사람은 먹어서 만족감을 얻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이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만족감이란 하나님이 맛보는 만족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얻을 때 누리는 만족감이다.

두 번째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보너스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셨다.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더 하시리라’ 라고 번역된 원문은 προστεθήσεται(프로스테떼세타이) ‘추가된다’이라는 뜻. 동사인데 미래형이고 3인칭 단수 수동태이다.

이 단어를 풀어보면 이렇다.

‘그리고 세속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 추가하실 것이다.’

어떤 선부른 번역에는 ‘이 모든 것도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가 너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다.’, ‘그가 너에게 이것 외의 다른 모든 것들까지 주실 것이다.’ 등등이다.

약간의 뉘앙스에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자칫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만 한다면 (노력함이나 염려함 없이)하나님은 이런 세

속적인 것들까지도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의미로 착각하게 된다.

어차피 살면서 그런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 그것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히 금수저이면서 경건한 기독교인인 경우)

그런데 성경 해석은 아전인수격으로 하면 곤란하다. 적용에 오류가 발생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맥락을 잘 살피면 해석에 매우 유의하다.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다. 공중의 새나, 들의 들풀조차도 하나님은 매우 세심하고 정교하게 만드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들은 하찮은데도 그렇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다 아신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한다. (문의하고, 요구하고, 찾고, 검색하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시도하고,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 등등)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공부해야 한다.

물어보고, 책을 보고, 토론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요구하고, 실제로 현실에서 시도해 보고,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

의식주가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결코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뜻이다. 의식주에 쫓기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더 잘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 거듭나야 함.

먹을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윤리를 따라서 구한다. 아말렉 족속처럼 욕심스럽게 다른 사람 소유를 함부로 빼앗고, 북한 공산당처럼 공포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게 되면 오히려 나라는 가난해진다. 깡패 국가가 된다.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부강한 나라, 부강한 가정이 된다.

왜 가정이 서로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 의가 끊어지고, 세상에서 실패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 그렇게 살아서 언제 부자 될래? 남들은 다 저렇게 해서 부자 되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러면서 염려가 찾아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거듭난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겉으로는 똑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치관과 세계관과 내일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성공이다. 아멘.

페이스북에 ‘체인지 그라운드’ 라는 페이지가 있다. 둘러보니 교인들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세상사람들에게 설교를 많이 하는 페이지다.

<찬양예배>

제목 : 빌립 집사의 전도      성경: 사도행전 9장

Tag:

\*사울이라는 청년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현재는 유사위기 상황)

-큰 환난은 큰 기회가 된다.

-우리나라에도 6.25 동란으로 남한은 큰 기회를 잡게 되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나름대로의 소신과 가치관이 분명했다.

-그는 특히 열정적인 성질의 소유자로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 태도 등을 잘 바꾸려하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 비판이나 어긋난 정보나 반대 의견이 나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시한다. 왜 그런 어긋난 정보가 생산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려는 태도를 거부한다.

-왜냐면 그런 거짓된 정보들이 자신을 미혹하게 될지 모르고, 또는 그런 것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자초지종을 점검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실한 태도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귀찮게 여기며, 자신이 신뢰하는 누군가가 그 작업을 대신해 줄 때까지 기다린다.

-대부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핍박하고 말았지만, 사울은 지속적으로 핍박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체포하는데 앞장섰다.

-전도는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 영혼을 구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돕는 입장이 되어야지, 내가 그를 설득하거나 그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모든 땅으로 흠어진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사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흠어지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흠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이 처음으로 실현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런 식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 대한 이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가장 적절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다.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흠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었다.

#### \*빌립집사의 전도

-7집사중 스테반 다음으로 언급되었다.

-빌립집사의 전도에서도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기적을 통한 증거를 들 수 있다.

-특히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 \*빌립의 세례

-빌립이 선택한 복음 전파의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과 회개의 세례가 핵심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그대로를 실천한 셈이다.

-빌립은 집사로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였다.

-빌립은 자신이 물 세례를 베풀고 사도들이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선택하였다.

-이 말은 빌립 스스로가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빌립의 판단에 물 세례 만큼은 얼마든지 자신이 베풀 수 있어도 성령세례 만큼은 사도들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도 되겠다. (물론 빌립이 부러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런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이다. 교회는 사도권이라는 질서 위에서 있다. 세례나, 성령세례, 예배의 집례, 성찬의 집례, 설교, 권면, 치리 등에 대해서 질서를 부여하고 사도들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질서를 잡기 원했다.

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의논을 해서 사마리아에 사도들을 파송했다.

-사도들은 내려가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고, 성령이 임하였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빌립으로 하여금 성령도 받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했다면, 빌립은 순종했을 것이다.

-빌립과 교회는 매우 유기적으로(성령으로) 교류하며 협력하였다.

-만약 빌립이 사도들과 상의함도 없이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사도들은 그것을 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금하였을 것이다. 만약 적절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빌립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해야 하며, 은혜로 해야 하고, 불법을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께서는 영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

-교회는 불법의 여부와, 율법주의의 여부와, 우상숭배의 여부를 점검

할 책임이 있다.

-불법(현행법 위반), 율법주의(자기 공명주의, 성령의 법보다 우선시하는 법), 이상숭배(자기 배, 자기 뜻, 자기 지위 우선주의)

#### \*성령전도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다. 이는 복음 전도가 성령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다.

-26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특히 집사 빌립은 이런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도들 뿐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하였다.

-또한 바울에게도 이런 현상은 매우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 세군데 나온다.

-주의 사자가(26),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29),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39)

-표현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의미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빌립을 통해서 전도하셨다.

#### \*성령의 의도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빌립

-빌립은 아무런 까닭이나 정확한 기착점이 없이 길을 걸었고, 에티오피아 내시의 수레에 가까이 가라 하셨을 뿐 다른 말이 없었지만 순종하였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렸다.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복음 전도에 대한 의도와 동기와 전도목적 관점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에 적합한 환경은 주어진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상황을 찾을 수 있다면 내시의 이사야서 성경 낭독이었다.

-마침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으니, 이 또한 성령께서 도우신 것이요, 빌립은 그 의미를 깨닫고 있었으니 복음 전파에 안성맞춤이 되었다.

#### \*빌립의 사역지

-39절에는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물론 세례를 베푼 다음 내시와는 작별인사를 하고 길을 걷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는 의미이다.

-이후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다가 점점 북으로 이동하여 가이사랴에 머물러 정착하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결혼하여 네 딸을 두었는데 모두 처녀로 예언하는 자가 되었다.

-그 부모의 기름부음이 자녀들에게 흘러서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